

크레이그 키너 박사, 사도행전, 강의 22, 사도행전 23-26장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Dr. Craig Keener입니다. 22회기, 사도행전 23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22장 30절부터 23장 10절까지에서 우리는 산헤드린의 청문회에 대해 읽습니다.

이제 천부장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가 산헤드린을 소집하여 바울에 관해 모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어쨌든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산헤드린 성원들은 아마도 정기적으로 모일 것입니다. 그러나 호민관이 요구하는 것은 평가입니다.

그는 Paul을 주지사에게 보내기 전에 공식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군중의 외침은 혼란스러워서 이제 그는 공식적인 견해를 갖게 될 것이며, 그는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불행히도 그는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47년부터 58년이나 59년경까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대제사장이지만 그는 학대했습니다. 우리는 요세푸스에게서 이 대제사장직에 관한 온갖 나쁜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탈무드에는 일부 대제사장들이 몽둥이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때리는 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혁명가들에게 그다지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혁명가들에 의해 처음으로 암살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혁명가들이 지은 회칠한 담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바울의 뺨을 때리라고 명령하는데 이는 심한 모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이를 뺨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뺨을 때리는 것은 모욕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이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대 법적 컬렉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lex talionis와 함께 배치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뺨을 때리면 벌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됐어요.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맞으셨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치라고 명령하는 것은 분명히 법적인 윤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고 바울도 대답했습니다. 바울은 회칠한 벽아, 에스겔서 13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언급하면서 부패가 회칠로 은폐되거나 가려졌다고 대답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그런 식으로 말합니까? 이에 바울은 “오, 내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줄 알지 못하였노라”고 대답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큰 논쟁은 바울이 정말로 그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바울이 비꼬는 것인지 아이러니하게 말하는 것인지입니다. 글썄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근시였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제사장이 자신의 공식 의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대제사장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별로 좋은 주장이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13에서 내가 갈라디아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병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당신이 당신의 눈을 뽑아 나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눈에 이상이 있는 게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그 주장은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고대 문헌의 다른 곳에서는 사람이 애정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깊은 희생을 하는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대제사장은 예복을 입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논쟁은 어쨌든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제사장 직무를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산헤드린의 의장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은 바울이 알고 있던 대제사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임에서 그가 맡은 공식적인 역할, 아마도 그의 자리 때문에 바울은 아마도 그가 대제사장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바울이 아마도 아이러니하고 비꼬는 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율법에 따라 대답합니다.

대제사장이 율법대로 행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치게 하면서도 어찌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위선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회칠한 벽이라고 말할 때 율법을 인용하고 있거나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경을 인용하여 '죄송합니다, 어쩌면 아이러니하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경을 인용하여 “너희 백성의 통치자를 비방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로마 총독이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아니면 이 기간에 아그리파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그리파 2세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망한 아그리파 1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하면서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아마도 의도적으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또한 일부 보수적인 유대인의 감수성에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정확히 로마의 꼭두각시가 아니었지만 특정 경계 내에서 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풀은 자신의 정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감정에 호소하는 초기 파토스를 언급했습니다. 에토스는 성격에 대한 호소였으며 수사학에서 매우 빈번하고 매우 중요했습니다. 고대 연설 곳곳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성격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아니면 나는 이런 좋은 일을 했을 사람이다.

글쎄요, 바울은 자신이 성경의 사람임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정신과 성품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의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는 유대 문화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려는 노력에서 아무런 근거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런 식으로 자랐다는 사실이나 뭐든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6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재판을 받는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함인데 이는 사두개파와는 달리 바리새인의 특징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들의 독특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바리새인들의 독특한 신앙 이상의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뿐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가 바리새인 운동의 제자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그의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했고, 그의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고,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다는 뜻일 수도 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산헤드린에서 소수였고 아마도 이 시점에서 차별받는 것에 매우 민감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앞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변호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그의 계시를 옹호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아마도 천사나 영이 그에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우리의 논평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자신이 천사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확실히 그들은 적어도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그의 말에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을 보면, 믿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바리새인들이 토라를 지키기 때문에 이 운동이 매우 존경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전통 중 많은 부분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도 배를 많이 흔들지 않습니다. 이 세대의 바리새인들은 좀 더 개방적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영이나 천사일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바울에게 말한 이유는 사도행전 22장에서 그들이 이미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들 중 일부가 거기 있었을 수도 있고,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은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었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은 한쪽을 당기고 있고, 사두개인들은 다른 쪽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을 찢어버릴 수 있는 끔찍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서에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두 사람이 각각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당기는 것. 이 경우, 트리뷴은 말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증인이거든요.

그는 나중에 랍비 전통에 따르면 성전산에 있거나 성전산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흠스톤의 방이었던 의회실로 군대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요세푸스는 그것을 어쨌든 매우 가까운 곳에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곧 관심을 끌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의 군대는 밖에 있지만 그는 방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바울을 치라고 명령했는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리스어로 진행되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리스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아마도 사두개파 사람들도 종종 그리스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무덤 비문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는 이 중 일부를 따라갈 수 있었고 이것이 내부 종교 문제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법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똑똑했습니다. 그는 이것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헤드린 청문회에서 나오는 혐의가 종교적인 문제인지 확인합니다. 그는 계산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 분리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리시아스가 개입하여 바울을 다시 끌어내기 위해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의도적으로 풀을 구출했다고 말할 때, 비록 그가 그를 구출한 첫 번째 경우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안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을 것입니다. 산헤드린 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까? 글썄요, 우리는 로마 원로원 회의장에서 이와 같은 싸움을 벌였습니다.

요세푸스는 회원들이 서로에게 돌을 던지면서 산헤드린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왔는지,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들을 벽 밖으로 끌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산헤드린에서의 갈등은 이번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Claudius Lysias는 고려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와중에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바울은 21장 38절에서 생각했던 암살자 중 한 사람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바울을 죽이는 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해 할 때가 있습니다. 서스펜스에 상처를 줬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탈수로 사망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정한 상황에서 랍비나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을 불러서 당신의 맹세를 면제해 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아마도 적어도 한동안은 더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했다면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혁명가들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고 10년 안에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들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음은 종종 다양한 종류의 열정과 열정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육체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민족주의적 열정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는 특히 싸움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젊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부 젊은 성직자 귀족들도 혁명가들에게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헤드린의 몇몇 사람들을 접촉하여 산헤드린이 바울을 다시 데려오도록 요청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중에 풀을 암살할 것입니다. 이는 산헤드린의 모든 사람이 이에 공모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산헤드린에는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끌려가게 될 25장에서 문제가 됩니다. 글썄, 그 당시 음모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는 아마도 이전에 알려진 사실을 바탕으로 그것을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언급한 것처럼, 산헤드린을 포함하여 항상 유출이 일어났습니다. 요세푸스는 자신을 죽이거나 포로로 데려오기 위해 사람들을 파견한 사례를 보고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조카도 청소년이어서 사람들이 그가 바울의 조카인 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군가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그 소식을 들은 서클에 친구가 있을 수 있는 Paul의 조카가 그에게 경고하러 옵니다. 글쎄, 그는 안토니아 요새에 어떻게 들어갈 건가요? 아, 그 전에 이 음모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던 안토니아 요새에서 산헤드린으로 추정되는 장소까지의 거리는 약 1,000~1,500피트, 즉 300~450미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절 한쪽으로 꽤 좁은 길이 있습니다. 즉, 로마인들은 숫자에 의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풀이 있는 기둥 중앙에 번개처럼 빠른 공격이 가해지면 풀을 빠르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 중 일부가 죽는다면, 어쨌든 그것은 그들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잠재적인 자살 공격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순교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약 40명은 군인보다 수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을 따라 걷는 이 기둥의 특정 장소에서는 군인보다 수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단지 성전 주변에서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암살당하지 않고 그의 주변의 군인들도 암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쎄, 그의 조카는 이 소식을 듣고 아마도 늦은 오후나 이른 저녁에 안토니아 요새로 향할 것입니다. 경비원이 방문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종종 그들은 이를 허용하기 위해 뇌물을 청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벨릭스는 바울을 맡은 백부장에게 그의 친구들이 그를 방문하여 섬기게 하라고 명령해야 했습니다. 이는 또한 주정부의 자금을 절약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펠릭스가 걱정할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풀이 결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뇌물은 경비원에게 매우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미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 대우의 문제 중 하나는 경비병 중 한 명으로 백부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꽤 높은 지위에 있는 경우에만 백부장을 경비원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은, 그것이 첫 번째 그룹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경비를 받을 때에는 백부장과 함께 경비를 받았습니다. 이는 바울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보여줍니다. 음, 리시아스, 여기 바울의 조카가 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조카에게 플라비우스 리시아스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시점에서 또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리시아스를 신뢰할 만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조카가 이 말을 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그 소식이 암살자들에게 돌아간다면, 당신의 조카는 아직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호민관인 칠리아크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오자 Claudius Lysias는 그의 손을 잡았는데, 이는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친숙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발견합니다. 글썄요, 그는 산헤드린의 요청을 정말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일 산헤드린이 바울을 오라고 청했는데 그가 바울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산헤드린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 음모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나는 풀을 당신에게 보내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곤란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산헤드린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선점합니다.

그는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직접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그에게 보냅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대한 음모가 형성되었지만 그는 이 편지가 일단 보내지면 공개 기록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산헤드린을 연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집단을 지휘하는 호민관이 되는 것은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헤드린 전체가 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청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예상치 않게 Paul을 보냅니다. 그는 자신의 집단의 대부분, 일부 집단, 가장 큰 집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환기였습니다. 이것이 언제 표준화된 규모의 집단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부 집단에는 600명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480명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일부 부대에는 보병 480명과 기병 120명이 있었습니다. 리시아스는 기병대와 보병대를 모두 파견했는데, 그는 분명히 그의 부대의 상당 부분을 파견했습니다. 지금은 오순절 축제 직후이며 축제 기간 동안 안토니아 요새에 있는 예루살렘의 부대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보게 될 무능한 이 주지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방금 군대를 보냈고 그들은 아직 모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 기병대 중 일부는 어쨌든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그는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군인을 바울과 함께 보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유대 구릉지에서 야간 매복 공격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펠릭스의 잘못된 행정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야간 매복에 연루된 것을 포함하여 어떤 이유로 체포되었다면 산 채로 잡혀서 충분한 돈을 지불하고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패로 인해 이 기간 동안 매복 공격이 증가했고 더 많은 병력이 있으면 매복 공격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복을 막는다면 매복과 싸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전투에서 더 많은 사람을 잃을수록 트리분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도 잃지 않으면 그는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를 파견하고 그들은 강제로 밤새도록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펠릭스(Tiberius Claudius Felix)에게 행군하도록 파견됩니다. 이제 그는 티베리우스 안토니우스 펠릭스였을 것입니다. 요세푸스가 말하는 것과

티베리우스가 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지만, 요세푸스는 현지 상황에 좀 더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Tacitus는 그의 형제 Paulus Felix가 그의 형제와 동일한 자유민 지위에 대한 후원자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요세푸스가 옳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의 정식 이름은 Tiberius Claudius Felix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아마도 52세쯤에 재직했고 아마도 59세쯤에 끝났을 것입니다. 펠릭스에게 보낸 공식 편지는 법적 파일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아마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할 수 있고, 원할 경우 표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의역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들이 가이사랴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검찰측은 물론 변호인단도 이 편지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주어진 모든 연설의 요약 사본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간결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는 바울과 그의 고발자들, 특히 사도행전 24장의 더들로가 한 연설이 있습니다.

루크는 글을 쓸 때 그 내용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26장을 위해 그곳에 있었을 수도 있고 아마도 사도행전 24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도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펠릭스는 가장 뛰어난 펠릭스로 언급됩니다.

그것은 원로원 계급 바로 아래에 있는 로마 기사 계급에게 어울리는 칭호였습니다. 글쎄, 당신은 더 높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지만 기사는 그런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펠릭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민이지만 로마궁에서 해방된 노예인 형이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강력한 자유인인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권력 위치에 있지 않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펠릭스는 주지사이므로 가장 뛰어난 직함을 얻게 됩니다.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방식을 보면 마치 그가 의도적으로 바울을 구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시다시피, 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반대 심문을 받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한, 당신은 당신의 은인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의 은인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그 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 모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는 Lysias가 그를 구출했다고 Lysias가 말한 것과 모순되지 않을 것입니다. Lysias는 두 번째로 구출했습니다. 군대는 바울과 그의 편지와 함께 밤새도록 강제 행군하도록 파견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안티파트리스가 밤새 행군하기에는 너무 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합리적인 반대인 것 같습니다. 군대를 얼마나 파견하느냐에 대한 반대도 마찬가지다.

결국 루크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루크는 안토니아 요새에 없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시한 이유들로 인해 이렇게 많은 군대가 파견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밤샘 행군에 관한 한 로마 군인들은 정기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운동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주기적으로 20마일이나 32킬로미터의 강제 행군을 가졌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30마일이나 48킬로미터를 강제 행군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밤새도록 그렇게 하도록 강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위해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Antipatris는 35마일에서 45마일 또는 55~7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지만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필요하다면 이것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 상황에서 사람들은 때때로 이런 일을 합니다. 내리막이야. 그들은 Antipatris에 도착합니다. 음, 그들이 아침에 몇 시에 거기에 도착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들은 어두워지자마자 저녁 일찍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보병은 아마도 방향을 돌려 안토니아의 요새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그들이 돌아오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낮이 될 거예요.

매복 공격은 대부분 밤에 이뤄졌다. 기병대는 안디바드리에서 출발해 가이사라 반쯤 가던 중이었다. 우리는 로마의 도로를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의 안티파트리스 유적지에 관해 약간의 논쟁이 있지만 우리는 로마 이정표에서 가져온 도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병대가 가이사라로 가서 바울을 구출하고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리시아스는 편지를 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읽으므로 아마도 그 사람이나 그를 위해 책을 읽어 주는 누군가가 그 편지를 큰 소리로 읽어 줄 것입니다. Paul은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다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펠릭스 총독은 그가 어느 지방에서 왔는지 묻습니다.

글쎄요, 그는 길리기아 출신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때 펠릭스가 사건을 직접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업무량을 줄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이라면 이 기간에 길리기아는 벨릭스의 우두머리인 수리아 총독의 통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상사에게 더 많은 업무량을 주는 대신 그 일을 스스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발자들이 오면, 자신의 호민관인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는 반드시 자유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는 자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민권을 샀습니다. 그러나 총독 펠릭스처럼 그도 이 직책을 맡을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펠릭스는 총독이 선출되는 일반적인 계층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Claudius Lysias는 트리뷴이 선택된 일반 그룹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리뷴은 귀족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어떤 연관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우정을 쌓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백부장이 때때로 호민관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뷴은 때때로 주지사와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벨릭스는 대제사장의 말을 믿는 것보다 자신의 호민관을 믿는 경향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때때로 대제사장과 좋은 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며칠 후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폴은 아마도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아주 짧은 시간에 소환될 것입니다. 관례대로 고소인들이 먼저 말을 합니다.

그들은 더둘로가 그들을 대신하여 말하도록 합니다. 더둘로는 이름을 보면 로마 시민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곤경에 처했을 때 아나니아를 원하는 귀족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현명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창하게 말할 수 있고 로마인인 사람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의 연설의 요약물을 얻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법원 문서에서 얻은 내용은 요약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간략하게 기록했지만 주로 요약물을 기록했습니다. 기록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폴이 대답합니다.

여기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21절에는 몇 가지 수사학적 기법이 등장합니다. 21절에서는 재판관을 찬양합니다. 글쎄, 그것은 오프닝에서 관례였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아첨하고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말을 하는 더들로보다 그를 더 아껴 칭찬합니다. 더들의 연설에서는 벨릭스가 나라의 평화를 확립했으며 훌륭한 통치로 유명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를 유지하고 폭동을 진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진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제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재판관을 칭찬하는데, 오히려 아껴주는 칭찬이고 더 정확한 칭찬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이 사람들의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이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벨릭스는 나중에 24절쯤에 벨릭스가 기독교인의 길과 움직임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드루실라였습니다.

Drusilla는 Agrippa II와 Bernice의 자매였습니다. 그녀는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유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거기에 오랫동안 있었죠. 그래서 그는 그 방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 운동이 정치적으로 전복적인 운동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바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10절에서 재판관을 칭찬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사건에 이르게 된 사건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당시 국방 연설과 수많은 종류의 연설에서 표준이었습니다.

청중을 칭찬하는 무료 권고로 시작한 다음 사건에 이르게 된 사건에 대한 내레이션이나 서술로 이동합니다. 연설에서만 사용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장르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글쎄요, 사건에 대한 설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딱 12일 전에 왔습니다. 이는 사도행전에 언급된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2일 전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가 축제에 온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는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오순절 축제를 위해 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경건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에토스의 성격 논증에 들어맞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폭동을 일으키긴 했지만, 내가 폭동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회당에서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회당에서 설교할 만큼 여기에 오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울이 자신에 대한 비난과 관련하여 즉시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종종 연설에서 자신이 반박하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하곤 했습니다. 라틴어로 반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중대한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입증 책임을 져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으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연사들은 상대방에 대해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25장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할 때, 누가는 그들이 증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주장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풀을 폭동과 연관시키고 싶다면 여기서 멈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을 돌아다니며 문서를 수집했을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에베소로 돌아온 후 내년에 그들이 왔음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들이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가지고 왔을 수도 있었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폭동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그가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 이러한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울이 아닌 모든 증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이유입니다. 14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글썄, 그것은 고대 법의학 수사법과 고대 법적 수사학에서 훌륭했습니다.

그것은 훌륭했다. 사람들은 종종 범죄가 아닌 일을 자백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신뢰도를 얻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이 일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소될 수 없습니다. 화자는 때때로 범죄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산헤드린에서 책략을 쓴 것과 같은 비난입니다. 그러므로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는 이것이 단지 종교적인 문제일 뿐임을 그의 편지에서 목격하고 증명합니다. 그리고 Paul은 이것이 다시 법정 기록에 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공개 기록입니다. 그들이 그에 대해 정말로 반대하는 유일한 점은 로마법에 따라 사형 범죄를 구성할 수 없는 특정 종교 문제에 대해 그와 의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폴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다.

그것은 또한 그의 경건함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인데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그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음,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이미 법원 문서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반면, 사두개인과 아나니아 와 그를 고소하러 온 다른 사람들은 부활을 반대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동의하지 않지만 소수의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유대교의 주류 신앙입니다.

그리고 드루실라와 결혼한 펠릭스도 그것을 알 것이다. 부활을 믿었다는 이유로 바울을 처형하려면 바리새인들을 처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처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인 지역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산헤드린 공청회에서도 나온 판결입니다.

그것이 그곳에서 그를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16절에서 그는 그의 양심이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23장에서 그는 그렇게 말했고 대제사장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를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분명하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정신에 대한 진술입니다. 이는 마치 내가 이전에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할 말이었고, 그 순간 누군가가 바로 범죄자가 되거나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면 일반적으로 취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우리는 그의 정신과 성격에 대해 더 많이 배웁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에게 구제를 베풀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헌금에 대해 배웁니다. 그리고 누가 이것이 오직 신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확실히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이 신자라는 사실은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백성에게 돈을 가져다 주러 왔습니다. 그것은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에 대해 불평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증인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때로 내가 고소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재판을 받고 있어 고소인이 더욱 악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4장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있는 이 사람에게 행한 은혜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면 고발자들은 매우 나쁘게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8절과 19절은 요점을 실제로 강조합니다. 그는 내가 성전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폭동을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그랬어요. 성전은 성소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사람은 절과 같은 곳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있었다면 여기에 있었어야 했던 나의 고발자들도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문장을 끄습니다.

여기에 그가 문장을 끝내지 않은 부분에 줄임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자들에 대한 기소를 취소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명시적으로 언급하기보다 암시적으로, 암시적으로 암시하는 경우도 흔했다.

그리고 Paul은 여기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성전에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누가의 이야기를 통해 확증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폭동을 시작한 것은 그를 고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고발자들에 대해 기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는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의 이야기는 그가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고발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건은 법정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기각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시작한 피고인들은 법원에 물건을 가져오고 나서 증언을 하지 않아 판사의 시간을 낭비한 죄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사건을 포기한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은 거기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들을 고소했지만 증인이 없습니다. 증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미 에베소로 돌아갔을 것이고 아마도 그곳에 머물지 않는 것이 현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사건을 법정에서 기각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 그가 계속한다는 이유로 사건은 기각되어야 한다. 당신은 끝까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자주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연설이 끝날 때 산헤드린 청문회에서 나온 유일한 비난은 바울이 조작한 비난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나온 유일한 비난은 종교적으로 관련이 있었습니다. 나는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말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부활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리시아스가 여러분에게 목격하고 말한 산헤드린 공청회에서 이미 분명해졌습니다. 로마 정의의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바울의 주장은 너무나 명백해서 이 사건은 법정에서 기각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즉시 석방되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왜 계속 감옥에 갇혔습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만. 그를 고소한 사람들은 지위가 매우 높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완전히 높은 지위에 있고 바울에게는 지위가 없었다면 벨릭스는 아마 그를 그들에게 넘겨 처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도 어떤 지위가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유대 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바울이 이 운동의 지도자라면(사실 그를 고발한 더둘로가 말한 대로) 그는 나사렛 종파의 우두머리입니다.

글쎄요, 만약 그렇다면 폴은 그 자신만의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로마 시민이다. 그의 고발자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지자들이 있다면, 로마 시민이 부당하게 처형당했다는 소식이 로마로 돌아가면 펠릭스는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정기적으로 바울을 초대하여 자기 앞에 와서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의에 관해 말합니다.

바울은 심판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펠릭스는 매우 긴장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듣겠습니다. 펠릭스와 드루실라 둘 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벨릭스는 바울이 의 등에 관해 말할 때 긴장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의와 절제와 판단입니다. 그 시대의 도덕 철학자들은 자제를 자주 강조했습니다.

음, 펠릭스는 세 명의 다른 공주와 연속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공주와 결혼한 현재의 공주는 드루실라였습니다. 그녀는 앞서 언급했듯이 아그리파 1세 왕의 딸이자 아그리파 2세와 베르니케의 누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가 실제로 그녀를 얻기 위해 키프로스 유대인 마술사를 사용하여 그녀를 전 남편에게서 멀어지게 유혹한 커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가족 사이에서 그다지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과도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알다시피, 이것은 멋진 정치적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는 자제력이 부족하고 의로움이 부족한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루실라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부도덕한 조건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을 가두었던 이유는 그가 단지 뇌물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누가는 26절에서 말합니다. 글썄요, 그것은 요세푸스가 이 시대와 이 지역의 로마 총독을 묘사한 방식과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심리가 열렸던 가이사라 궁전의 편안한 숙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헤롯의 방식으로 와서 말하라고 초대합니다. 안디바는 종종 요한이 마가복음 6장에서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했지만 그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바울을 감옥에 남겨 두었습니다. 그가 떠날 때 유대 당국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펠릭스는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호의가 필요했습니다. 27절에서는 벨릭스가 교체됩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 의해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소환되었습니다. 글썄요, 그건 매우 심각한 일이겠죠. 그의 전임자는 부패 혐의로 소환되었고 전임자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기소로 전임자에게는 매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펠릭스는 로마로 소환됩니다. 우리는 펠릭스가 부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뇌물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대제사장을 죽이려고 한 대제사장에게도 뇌물을 주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당국으로부터 최소한 어느 정도 호의를 얻을 수 있도록 바울의 사건을 미결 상태로 두었습니다. 주지사는 때때로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의 형제 팔라스는 자유민이었고 더 이상 같은 관리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팔라스는 여전히 강력했고 분명히 펠릭스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펠릭스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주지사직을 떠나야 했습니다.

벨릭스가 다시 부름을 받았을 때 새 총독이 파견되었는데, 새 총독은 베스도였습니다. 이제 베스도는 가장 공정한 총독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요세푸스가 실제로 꽤 훌륭하게 묘사한 유일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베스도는 말도 안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취임한 후 얼마나 빨리 업무에 착수하는지를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Agrippa 및 Bernice와 잘 지냈지만 불행하게도 사무실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몇 년 후에 재직 중 사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팔라스는 페스투스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베스도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임자를 소환한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는 알팍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음 ... 아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곳이 주지사가 사는 곳이고 그가 가는 곳입니다. 그들은 풀이 그곳으로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는 음모에 대해 모른다.

그는 아마도 그곳에 막 도착했기 때문에 리시아스의 편지에서도 음모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Paul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는 일이 Paul의 사건을 사건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Paul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빨리 심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법원 기록이 아직 남아 있어도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일어난 일의 이점을 잃었습니다. 사건은 정말로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새로운 주지사와 함께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 장의 대부분은 25절로 시작하고 13절로 시작하는 대부분은 아그립바 2세와 버니게가 베스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Agrippa와 Bernice가 임기 초기에 공무원을 자주 방문했다는 것을 다른 소식통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베스도와 아그리파가 좋은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그리파와 그의 처남이 그의 여동생의 이전 결혼을 망친 것과는 달리 말입니다. 베스도와 아그립바는 좋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은 서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스도와 아그립바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때때로 예루살렘 제사장들을 반대하는 편에 섰습니다. 종종 그들은 로마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아그리파와 베르니케는 그런 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반란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반란 후에도 아그리파와 베르니케가 자신의 지역에서 권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고 만족했습니다.

요세푸스가 1세기 90년대에 작품을 썼을 당시 그들은 아직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누가 기록할 당시에 그들은 의심할 바 없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아버지인 아그리파 1세(Agrippa I)가 그다지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요세푸스(Josephus)에서도 그다지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나는 그 시점에 아직 살아 있는 통치자들에 대해 너무 많은 나쁜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버니스, 흥미롭네요. 그녀는 매우 슬픈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매우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여동생은 적어도 조롱과 조롱을 당했고, 아버지가 죽고 가이사랴에 주둔한 시리아 보조군 사이에 일종의 반란이나 항의가 일어났을 때 더 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왕과 결혼하지만 결혼생활은 파탄이 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오빠인 아그리파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근친상간 관계를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풍자하는 것을 좋아했던 Juvenal과 같은 신뢰할 수 없는 고대 자료에서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거짓일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비방의 대상이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포위 공격 중에 그녀와 베스파시아누스는 그곳의 로마 장군이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결국 로마로 돌아가 황제가 됩니다. 디도는 예루살렘 함락의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그 결과 베르니케와 티투스는 동거하게 되었고 베르니케와 티투스는 바람을 피웠다.

이 사건은 나중에 티투스가 황제가 되기 위해 로마로 돌아갈 때 항상 베르니케에게 만약 자신이 황제가 된다면 그녀가 황후가 될 것이라고 약속할 정도였습니다. 글썄요, 그가 황제로서 몇 년 후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다행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르니케가 황후가 될 것을 기대하고 로마로 갔을 때, 요세푸스는 티투스의 고문들이 제국이 유대인 여성을 황후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를 궁전에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그리파와 베르니케는 매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그리파는 페스투스가 올바른 관점을 얻기 위해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전임자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에 대해 온갖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그리파를 신뢰했습니다. 아그리파도 그와 마찬가지로 헬레니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그립바는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 시민이었으며 유대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총독이 듣고 싶어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람의 조언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약간의 음영을 적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멋있어 보이려고 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 난제를 언급한 후 아그리파는 자원합니다.

그는 나도 그의 말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베스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일은 그러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설정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한 누가의 증인은 누구입니까? 어쩌면 집안의 하인이 있을까요? 아마도. 하지만 이는 법원 기록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대화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글썄요, 여기가 고대 역사학의 장르가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할 것이지만 그것을 장면으로 구체화하는 책임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증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해야 할 것입니다. 글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나요? 페스투스가 사건을 소개할 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다음날 알게 됩니다. 그는 아그리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당신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미 25장에서 그를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장은 우리에게 어떤 표지 편지를 서류로 로마에 보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페스투스, 아그리파, 버니게 앞에서 청문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이전 장에서 그의 아람어 말처럼 웅변적으로 말합니다. 그의 헬라어 말하기 도 매우 웅변적이지만 이전 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연설은 22장에서 군중 앞에서 말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법률에 매우 능숙하고 예루살렘과의 관계 등을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아그리파의 마음을 끌기 위해 훌륭한 유대적, 헬레니즘적 유대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그리파가 자신이 대화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설득해야 할 사람은 아그리파이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 가시를 발로 차는 것에 대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고 말합니다. 글쎄,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히브리어나 아람어였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든 셈족어로 되어 있었다고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에우리피데스의 언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전체 설명을 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24장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했던 방식으로 자신을 변호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 때문에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장, 그 때에 성령이 네게 할 말을 알려 주시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네 지혜를 논박하지 못하리라.

또한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행 9:15 등)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자, 지금이 그에게 기회다. 여기 아그리파 2세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처럼 유대의 왕은 아니지만 현재는 더 작은 영역의 왕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왕 앞에서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베스도는 바울이 부활과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끊습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이미 이전 장에서 모든 논쟁이 죽은 사람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한 바울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26장에서 베스도는 재판관들이 허락한 일이고 종종 행했던 바울의 말을 가로막으며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것은 반쯤 칭찬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매우 박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매력적일 것입니다. 광기는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법적 방어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아마도 그는 이를 법적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수사학자들이 열정적으로 말할 때 미친 듯이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바울의 열정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철학자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미친 짓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냉소주의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은 종종 나머지 세계, 즉 대중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영감을 얻기 위해 바울이 열정적으로 말한 방식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군중은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취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너희가 다 방언을 하면 사람들이 왜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때때로 미쳤다고 불렸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서 선지자가 예후에게 와서 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부으니 그가 다른 군사들 가운데로 돌아와 이르되 이 미친 자가 무엇을 원하였느냐? 그리고 그는 당신이 문제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고 그들은 즉시 그를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종종 광기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예언적인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스도가 공감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의 모습과 같았을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예수께서 왕이 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에 관한 왕국입니다.

글쎄요, 빌라도에게는 그 말이 냉소적인 철학자, 무해하고 정치적이지 않은 현자처럼 들렸습니다. 왕국은 로마에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결백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반드시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는 확실히 바울이 예수에 대해 말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그립바에게 직접 상소합니다. 아그립바 왕이여, 당신은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실임을 아시나이다. 내 말은, 이 문제가 구석에 숨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널리 알려진 것, 공개적으로 있었던 철학적 운동 등에 대한 관용구 또는 비유였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구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왕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아그립바 왕이여, 당신은 선지자들의 말을 믿나이까? 그런데 그분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는 이것을 선지자들의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그가 '예, 나는 선지자들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하거나 '예, 나는 당신이 선지자들에 관해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약간의 논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당신이 나를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선지자들의 말에 동의한다고 말하도록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말하는 바로 그 분이십니다. 그러자 바울은 짧은 시간이든 오랜 시간이든 네, 나는 당신을 개종시키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이 사슬을 제외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토스의 좋은 결말. 그들은 그 시점에서 법원 심리를 기각하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그들이 함께 모여 이 남자가 죽어 마땅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결정하는 사적인 장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카이사르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도 있었습니다. 25장에서 그는 베스도가 호의를 베풀기 위해 사건을 로마에 제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 위해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내 말은, 이 행사가 로마에서 열리도록 요구하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유머러스하게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대로 가이사에게 호소했습니다. 글쎄, 그것은 매우 불규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스투스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관해 그의 협의회와 고문 직원들과 상의하는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에만 항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면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그의 생명이 더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은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베스도의 조언자들도 동의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우리는 그를 가이사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에서 꺼내세요. 우리는 예루살렘 엘리트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황제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내 말은, 우리가 황제에 대한 호소를 중단한다면 우리는 황제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정치적인 문제가 매우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황제에게 가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글쎄요, 이 사적인 장면은 어떻게 알려졌나요? 이 사적인 장면은 아마도 아그리파가 이 청문회를 갖게 된 이유가 아그리파가 페스투스가 혐의를 공식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재구성되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혐의와 사건의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는 카이사르 법정에 무언가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그리파의 조언으로 이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법적 문서입니다. 바울과 누가는 법률 문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은 길에서 바울이 아주 좋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동행하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에게 구두로 지시한 내용을 통해 알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편에 초자연적인 조력자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상황은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에 관한 가장 짧은 마지막 세션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Dr. Craig Keener입니다. 22회기, 사도행전 23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